

사교육 경감 · 공교육 정상화 해법 고민

전북교육청, 내달 학부모교육 3차례 진행... '부모가 변해야 교육이 산다' 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사교육 없는 교육 희망사다리'를 11월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교육은 11월 13일 강준민(전

북대) 교수가 준비하고 있다. 강 교수는 '언제까지 모골담(母骨擔)을 쌓을 것인가'를 주제로 공포관리이론으로 본 대학입시 전쟁에 대해 이야기 할 예정이다.

강 교수는 학력과 학벌에 따른 임금 격차를 완화하지 않는 한 '입시지옥'과 '사교육 공포'로부터의 해방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지속해왔다.

두 번째 교육은 11월 20일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과 코로나 영향의 아픔'을 주제로 열린다.

성장학교 별 교장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김현수 박사가 강사로 나서 이 시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통역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11월 25일에는 강수돌(고려대)

교수가 '부모가 변해야 교육이 산다'를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강 교수는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 안에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더불어 행복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대안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학부모교육은 각 회차마다 오전 10시부터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진행되며,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전북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학교 호원사회봉사단은 29일 (사)새만금발전추진협의회와 새만금지역 환경정화 자원봉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호원대 최경성 비서팀장, 임태연 호원사회봉사단장, (사)새만금발전추진협의회 황경식 이사장, 강희성 호원대 총장, (사)새만금발전추진협의회 김주태 이사, 이희 이사.

호원대-새만금발전추진협 '맞손'

새만금지역 환경정화 협약

호원대학교 호원사회봉사단은 29일 (사)새만금발전추진협의회(이사장 황경식)와 청정지역 새만금으로의 발전을 위한 새만금지역 환경정화 자원봉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희성 총장과 호원사회봉

사장장 황경식 이사장, 김주태 이사, 이희 이사가 참석했다.

강희성 총장은 "우리 대학은 국내·외 봉사활동 등 학생들과 함께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지역 환경정화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체육회는 최근 원로 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고문들은 체육 영재 발굴사업 등 도 체육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을 청취한 뒤, 도 체육회가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했다.

지역거점형 방과후마을학교 현장점검

전북교육청, 내달까지 전주·군산·익산 11기관 대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역거점형 방과후마을학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11월까지 전주·군산·익산의 지역거점형 방과후마을학교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가을학기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지역거점형 방과후마을학교는 문화, 예술, 체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 도시지역 학생들에게 목공예, 드론, 야구, 방송댄스, 한국무용, 창작글쓰기 등 다양한 방과후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물론,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학교와 마을과 지역이 함께 방과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 기관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중과 주말 방과후마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엔 각 10일 20시간, 봄학기과 가을학기는 각 15주 30시간씩 운영하며, 수강료와 재료비는 전액 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 지침 준수 여부와 프로그램 수, 강의시간, 방역용품·재료구입, 간식비 등 운영 예산 사용의 적정화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시지역 방과후 활성화 방안으로 시작한 지역거점형 방과후마을학교가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다양

한 방과후 프로그램 만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해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27일에는 지역거점형 방과후마을학교의 성장과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체육회, 고문간담회 개최

전북체육회는 최근 원로 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데 따라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문들은 체육 영

재 발굴사업 등 도 체육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을 청취한 뒤, 도 체육회가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인철 고문(전북체육발전연구원 원장)은 "우선 이 자리를 만들어줘 감사하다"며 "영혼이 있는 체육회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동하는 체육회 봉사하는 체육회 회생하는 체육회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회합과 단합을 통해 체육인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문 간담회 이후 임환자자기 후원회(회장 김옥길)와 전국산삼협회(회장 유길수)에서 후원하는 산삼 기증식도 진행됐다.

이들 단체는 "원로 체육인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전북 체육 길잡이가 돼 달라"며 이날 고문들에게 산삼과 자연산 도라지 분말을 전달했다.

정강선 회장은 "고문들의 고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 체육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LINC+사업단,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시상

전주비전대학교 LINC+사업단은 2020년 LINC+사업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LINC+사업 협약업체 애로사항 해결 및 학생들의 창의적 능력 배양을 위해 6개월 동안 교수 및 협약업체 등 외부전문가의 체계적인 지도를 받아, 총 43개 작품을 개발했으며, 개발된 작품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2020 LINC+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 우수 작품 전시 및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대상을 비롯한 7명의 수상작을 결정했다.

대상을 받은 '산소 및 음이온 생성 하이브리드 필터 공기정청기는 미세 먼지 증가로 인한 환기 감소로 실내 산소농도 감소 및 CO2 농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음이온발생기 및 정전집진필터를 이용한 미세먼지 감소, 아두이노를 통한 센서로 실내공기 상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공기정청기 제품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도서관, '채사장 작가' 초청 북 콘서트

내달 13일 오후 2시부터

전북대학교 도서관은 스테디셀러인 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의 채사장 작가를 초청해 지역민과 함께 하는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북콘서트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대 도서관이 국가거점국립대학 도서관으로서 지역민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 작가는 인문학 분야에 드문 밀리언셀러 작가로, '시민의 교양', '열한

계단'을 펴내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학생뿐 아니라 지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북 콘서트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부터 전북대 학술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날 강연에서는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시리즈의 신간인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제1권에 대한 강연과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 가수 조다빈, 이재민씨의 음악 공연도 어우러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북콘서트는 코로나 1단계 지침에 따라 150명의 인원으로 제한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